



이광희 베드로 신부 | 해외선교(프랑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이주사목 소임 중에 해외 선교 발령을 받아 프랑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만나서 도움을 드리다가 이제는 반대로 이주민이 되어 프랑스 본당에서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이주민과 함께 지내며 이주민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듯합니다. 프랑스는 처음이 아닙니다. 10년 전 4년의 연수 동안 프랑스 교회의 경험이 있었기에 생활의 적응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주사목 그리고 프랑스 연수는 지금의 해외 선교를 위한 준비가 되어 새로운 소임을 시작하는데 커다란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듯합니다.

오늘은 대림 시기의 시작이고 교회의 전례력으로는 새 해의 첫날입니다. 교회는 한 해의 시작을 대림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례력으로는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4주간 뒤에 기념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이래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리 오실 그리스도’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영성적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1테살 3,13)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분처럼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예고하는 표징들을 관상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우리에게 선사된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손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분명 쇠신의 때인 대림 시기에 참된 행복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오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기에 인간인 우리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어 은혜 베푸실 날을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림의 때에 우리는 인간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느끼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두물머리, 양평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루카 21,36)

초라한 십자가 앞에 선 수녀님의 뒷모습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도 가진 것 모두를 내어놓은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께로 인도하소서. 아멘

김연희 세라피나 | 가톨릭사진가회

